



나눔은 공동체, 더불어 사는 공동체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천주교회

ST. FRANCIS OF ASSISI CHURCH KOREAN COMMUNITY

Address: 135 West 31st Street, New York, NY10001

Phone : 646. 832. 7397

212. 736. 8500 (EXT 355, 384)

Website : <https://stfrancisnyc.org/>

Email: seoulosb@gmail.com

주임신부 : Brian J. Jordan, OFM

지도신부 : 이웅희 루카 (작은형제회 : 프란치스코회) luke0829ofm@gmail.com

전교수녀 : 안 마리루시 (통정포교베네딕도회서울수녀원) seoulosb@gmail.com

사무회장 : 장철순 스테파노 646. 322. 2139 stfrancis.cj@gmail.com

제1독서 | 집회 27,30—28,7

화답송 | 시편 103(102),1-2.3-4.9-10.11-12(◎ 8)



○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내 안의 모든 것도 거룩하신 그 이름 찬미하여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그분의 온갖 은혜 하나도 잊지 마라. ◎

○ 네 모든 잘못을 용서하시고, 네 모든 아픔을 없애시는 분. 네 목숨을 구렁에서 구해 내시고, 자애와 자비의 관을 씌우시는 분. ◎

○ 끝까지 캐묻지 않으시고, 끝끝내 화를 품지 않으시네. 우리를 죄대로 다루지 않으시고, 우리의 잘못대로 갚지 않으시네. ◎

신앙고백: 사도신경

† 전능하신 천주 성부

◎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밀줄 부분에서 고개를 숙인다.)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 하늘이 땅 위에 드높은 것처럼, 당신을 경외하는 이에게 자애가 넘치시네. 해 뜨는 데서 해 지는 데가 먼 것처럼, 우리의 허물들을 멀리 치우시네. ◎

제2독서 | 로마 14,7-9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 알렐루야.

복음 | 마태 18,21-35

영성체송 | 하느님, 당신 자애가 얼마나 존귀하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당신 날개 그늘에 피신하나이다.

성가 | 입당 19 예물준비 216(217)
영성체 178(175) 파견 47

미사 봉헌

연미사 지향

- 김예경 안젤라 Helene, Johansson
- 조태연 안토니오
- 이성례 벨라멧다 영혼의 안식을 위하여
- 정영희 영원한 안식을 위하여

생미사 지향

- 이장학 토마스의 건강 회복을 위하여
- Brian, Patricia Yoon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하여
- 황태준 니콜라스(생일)
- 연령희 회원들의 영육 건강을 위해
- 이에진 유스티나 생일
- 김승환 베네딕토의 영육 건강을 위해
- 이로진 요한, 이로잔 캐더린 영육 건강을 위해

오늘의 말씀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처럼
너도 네 동료에게 자비를 베풀었어야 하지 않느냐?”
(마태 18,33)

날짜	해설	1독서	2독서	보편지향	성체 분배	복사
9월 13일	정유진	정은철	이경자	정은철 이경자	이정현 백이백	김도율 조혜원
9월 20일	장혜윤	민완준	류유리	민완준 류유리	이영혜 진서윤	한서희 최예준 김수현 이에진 허우현

미사, 성사, 교리 안내		
주일 미사	오전 09:15 대성전	
청년 미사	매달 둘째 토요일 오후 4:00 소성전	
고해 성사	08:30-08:50 아래 성당 고해소	
혼인 성사	면담 후 결정	*신청: Sr. 마리루시
유아 세례	면담 후 결정	*신청: Sr. 마리루시
봉 성 체	매월 1번째 목요일	*신청: Sr. 마리루시
예비신자 교리	일반인을 위한 교리 *신청: Sr. 마리루시	
견진 교리	방문교리(환자/어르신)*신청: Sr. 마리루시	

주일 미사 후 친교 모임

산 다미아노 홀/ 성당 밖 좌측 20m

오랜만에 성당에 나오신 분, 새로 전입오신 분, 처음 뵙는 분들께 먼저 다가가 따뜻한 인사를 나눕시다.

재속프란치스코회 뉴욕 한국순교자형제회

(Monthly Meeting: Secular Franciscan Order of New York Korean Martyrs Fraternity)

일시: 매월 첫째 주일 12:00-5:00 PM.

장소: 아랫성당(Church of St. Francis of Assisi)

대상자: 지원자/ 입회자/ 유기서약자/ 종신서약자

문의: 718-344-9790 정기열 프란치스코

연령회 월례회

오늘 미사 후 연령회에서 이순자(로사)/정운사(베드로) 부부, 고현실(미카엘라)를 위한 연도 봉헌이 있습니다.

시간: 11:00 AM. 장소: 아래성당

연도신청: 646. 369. 3666(연령회장 김종선 비비안나)

한가위 합동위령미사 예물 봉헌

9월 한가위 명절을 맞이하여 합동위령미사를 봉헌합니다. 합동 위령미사 예물은 주일 미사 후 친교실에서 <신청양식서>를 작성하고 접수(연령회)하시기 바랍니다.

- 합동위령미사 : 9/20(주일) 9:15, 대성전

- 이날 미사 후 공동체 한가위 식사 나눔이 있습니다.

2025년 하반기 주일학교 개강

일시: 오늘, 11:00-11:50AM

대상: 주일학교 유치부, 초중고 전 학년

아이들의 주일학교 활동이 즐겁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모님들의 많은 기도와 적극적 지원 부탁드립니다.

수녀님과 함께 하는 54일 묵주기도

제3차 '54일 묵주기도' 마침 모임 및 4차 54일 묵주기도 시작 모임을 함께 합니다. 묵주기도 첫날 함께 모여 기도하고 이후 개별로 기도합니다. (기도 기간 동안 감사기도 시작/마침에 모임 예정)

일시: 오늘, 12:00PM, 장소: 소성전(준비물: 묵주, 필기구)

2027년 부활 세례/견진성사 예비자 교리

2027년 부활성야에 세례/견진 받으실 분들을 모집합니다.

대상: 1) 세례를 받기 원하시는 분(예비신자)

2) 세례를 받은 사람 중 견진 희망자

(다른 성당에서 세례를 받은 분은 세례증명서 제출 필수)

모집기간: 2026년 10월 4일까지

교육기간: 2026년 9/13(주일)- 2027년 3/28(주일)

첫모임: 오늘, 1:00PM-2:30PM, 프란시스코

신청 방식: 신청서 신청/제출(seoulsb@gmail.com)

신청/문의: 646-832-7397 (Sr. 마리루시)

- 2027년부터 세례 받으시는 분은 세례성사와 견진성사를 동시에 받습니다. 또한 2027년 이전에 세례 받으신 분들은 견진성사를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2026년 청년성서 가을학기 모집

(주관:영원한 도움의 성모수도회)

과정: 창세기, 탈출기, 마르코, 요한

대상: 가톨릭에서 세례 받은 청년

신청 마감: 오늘까지

첫모임: 9/27(주일) 12:00PM, 프란시스코

문의: 714-809-9874. 카톡 sunwouk

(대표봉사자 유선옥 베로니카)



'푸른 올리브' 찬양기도회

"나는 하느님 집에 있는 푸른 올리브 나무 같아라.

영영세세 나는 하느님의 자애에 의지하네."(시편 52,10)

노래로 하느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묵상하는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청년들과 함께 하느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싶은 분들은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일시/장소: 9월 26일(토), 4:00-5:00PM, 아래성당

문의: 646-832-7397 (Sr. 마리루시)

"St. Francis's influence on INTERFAITH Relationship"

- 성 프란치스코 선종 800주년 특별 회년
본당공동체 1일 피정 -

성 프란치스코 선종 800주년 회년을 맞아 아씨시 성 프란치스코 성당에서 순례 피정을 마련합니다. 신앙으로 하나되어 함께 가는 영적 순례에 한인 신자분들을 초대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일시: 10/17(토), 8시 출발(32번가 단체버스)-3시 귀가

장소: Graymoor Retreat Center Garrison, NY

신청비: \$75(버스비+간식+점심 포함)

신청방법: 홈페이지 신청 또는 사무동 데스크

문의: Fr. Brian, tel 212-736-8500 ext. 232

bjordan@stfrancisnyc.org

한인공동체 온라인 서비스 안내

1. 미국 본당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합니다.

구글에서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성당"을 검색하세요.

stfrancisnyc.org > korean-ministry > Translate this page

Korean Ministry - Saint Francis of Assisi

클릭하면 한인공동체로 바로 연결됩니다.



주보

기부

✿ 신앙의 선조들을 찾아서

124위 복자 : 복자 김희성 프란치스코
(1765-1816)



교우들 사이에서 '경서'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김희성 프란치스코는 1765년 예산 여사울의 부유한 중인 집안에서 태어났다. 1801년 순교한 김광옥 안드레아가 그의 부친이다. 어려서 전통 학문을 배웠으나, 아버지가 신앙을 받아들이자 뒤 천주교 교리를 익히며 열심한 신자가 되었다. 아버지의 순교 이후에는 더욱 신앙에 힘썼으며, 모든 재물을 버

리고 가족과 함께 경상도 영양의 곧은장으로 들어가 금옥과 고신극기를 실천하였다. 특히 급한 성격을 극복하여 양순함과 인내의 모범이 되었다.

1815년 을해박해가 일어나 포졸들이 곧은장에 들이닥치자, 그는 아들에게 가족과 할머니를 잘 돌보라고 당부한 뒤 아주 기쁜 낯으로 하산하여 포졸들은 물론 밀고자까지도 관대하게 대접하였다. 그리고 가족들에게 작별을 고한 그는 웃는 낯으로 포졸들을 따라갔다. 이후 안동과 대구에서 문초와 형벌을 받았지만 끝까지 신앙을 굽히지 않았다. 결국 오랜 옥중 생활 끝에 1816년 12월 19일 대구에서 참수형으로 순교하였다. 당시 그의 나이 51세였다.

성화-김형주 作, 「복자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123위, 하느님의 종 가경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26

*출처: <의정부주보>, No. 1200, 가해, 2026. 09.13

투병 중이신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 (Mt 25.4)

김택영알버트 이옥기수산나 이경희미카엘라
김동희헬레나 지군자스테파니 진정은마리아
박재호베네딕트 이경봉요셉그레고리오 이병국요한

옥토

한중식 전문점

(646) 833-7864
1 E 33St. NY, NY 10016
(33가, 5애비뉴-매디슨 사이)
www.octo.nyc



WONJO

K BBQ since 1993

(212) 695-5815
23 W 32St. NY, NY 10001
www.newwonjo.com



UDON Lab

Udon & Izakaya

(646) 838-5338

43W 32nd St. New York, NY 10001

www.udonlab.com @udonlab_nyc



Kim & Bob Shop

김밥, 비빔밥, 떡볶이 & More

배달 및 포장 전문, 케이터링 주문 환영

(929) 797-1212

826 9th Ave, New York, NY 10019

Between 54 & 55th Street

www.kimandbobshop.com



마리아 투어

Maria Tour USA

성지순례

박 아그네스

TEL. 212-594-7773, 646-808-7322

CARGOZONE
LOGISTICS INC

양서윤 플로라 | Flora Yang

marketing@czlusa.com

657-337-5130

Clear Laser CITY CLINIC

얼굴 리프팅 / 색소·미백·레이저

보톡스 / 필러 / 여드름 흉터

Tel 212-697-1802 Text 917-670-7801

501 5th Ave #1601, NY, NY 10017

MIDTOWN SMILE DENTAL

hello@midtownsmiledental.com



임지수 마리아

(212) 532-8666

36 E 36th St. Suite 1K

(36가, 매디슨-파크 사이)

120 W 58th St. Manhattan, NY 10019

1205 WINE & LIQUOR

린다김 데레사

212-265-0333 (FREE DELIVERY)

MON-SAT: 10AM-10PM / SUN: 12PM-9PM

이민/부동산 (아오스딩)

백이백 변호사

201-224-3400

718-445-0345

Paicklaw@gmail.com

Nest Seekers

INTERNATIONAL

부동산

크리샤 박 (917) 370-0394

krishap@nestseekers.com

PETIQUE SALON

DOG GROOMING · DAYCARE · BOARDING

Petiquesalon@gmail.com



강동호 베드로

917-419-7444

444 2nd Ave, New York, NY 10010

HAPPY HOME CARE

이지원 라파엘라

Registered Nurse

(347) 927-5635

happyhomecare.rn@gmail.com

이:1 맞춤 방문 간호

(투약·검진·돌봄)



Colleen Insook Lee, M.D.

이인숙 내과



Tel: (212) 714-1170

Fax: (212) 290-9061

drleesmedical.mht@gmail.com (Bet. 32 & 33 St.)

1270 Broadway, #405 New York, NY 10001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로마 14,8)



최상훈 유스티노 신부 | 홍보위원회



‘용서’는 삶 안에서 마주하는 가장 어려운 문제 중 하나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했을 때, 특히 내가 받은 상처가 여전히 남아 있을 때, 먼저 용서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용서로 나아가는 것이 자신을

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머리로는 알면서도, 실제로 그 길에 나서지 못하고 미움과 분노의 감정에 머무르며, 때로는 복수의 마음까지 품는 우리 자신을 종종 발견합니다.

그러나 제1독서에서 집회서는 ‘마지막 때’를 생각하여 분노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타인에게 ‘화를 품고서는’ 주님께 치유를 구할 수 없으며, ‘죄의 용서’를 청하려면 우리 역시 ‘자비를 품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이웃의 불의를 용서할 때 나의 죄도 용서받다는 말씀은 ‘주님의 기도’의 “저희에게 잘못된 이를 저희가 용서하오니”라는 구절을 떠올리게 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집회서의 가르침을 ‘매정한 종의 비유’ 안에서 풀어내십니다. 만 탈렌트라는 어마어마한 빚을 진 종이 있습니다. 그는 주인 앞에 엎드려 간절히 청했고, 주인은 ‘가엾은 마음’으로 그 청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종은 밖으로 나가 자신에게 고작 백 데나리온을 빚진 동료를 만납니다. 동료는 그가 주인에게 했던 것과 같은 모습과 같은 말로 자비를 청하지만, 그는 그 청을 들어주지 않고 동료를 감옥에 보냅니다.

주인은 이 부당한 일을 알게 됩니다. 주인은 종의 어떤 변명도 듣지 않은 채, 빚을 갚을 때까지 그를 고문 형리에 넘깁니다. 이때 주인은 그를 ‘악한 종’이라 부릅니다. 마태오 복음에서 이 표현은 탈렌트의 비유에서도 다시 등장합니다. 주인이 맡긴 탈렌트를 땅에 묻어 두었던 종에게도 주인은 말합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마태 25,26)

이 두 종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자신이 받은 자비를 다른 사람에게 베풀지 않았고, 다른 한 사람은 자신이 받은 탈렌트를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땅속에 묻어 버렸습니다. 둘 다 주인에게 받은 것을 자기 안에서 멈추어 버렸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용서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용서와 달리, 먼저 받은 것을 건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한 사람이어서도, 상대방이 용서받을 만해서도 아닙니다. 하느님 때문에 용서하는 것입니다.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는다.”는 사도 바오로의 말씀처럼, 우리는 주님 때문에 이 어려운 길에 나섭니다. 용서는 하느님과 함께할 때 비로소 가능하며, 하느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입니다. 주님께 받은 자비를 우리 안에 묻어 두지 않고 다시 다른 사람에게 내보일 때, 예수님께서 오늘 복음에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용서의 길이 바로 거기에서 시작됩니다.



그림 묵상

용서의 황금률 | 일흔일곱 번. 남을 용서한다고 생각하면 너무 큰 숫자이고, 내가 용서받겠다고 생각하면 너무도 적은 숫자입니다. 제게는 아마도 살아온 날이 용서받은 횟수와 같기 때문일 것입니다. 동구 밖을 비질하며 생각합니다. 일곱 번이 아니라 일흔일곱이든,(새 번역) 일곱 번씩 일흔이든,(공동번역) 받은 것을 기억해 낸다면 주는 것도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끝없이 끝’인 용서의 황금률.

글 · 그림 하삼두 스테파노 | 작가